

Market Index / 8일

코스피지수 ▼ 2151.31
-24.23

코스닥지수 ▼ 640.94
-22.50

유가(WTI, 달러) ▼ 62.70
-0.57

감골 평균경락가(5kg, 원) ▼ 6,100
-200

환율(원) 1USD 1190.47
100¥ 1098.12

팔매 1149.53
1060.36

살매 1330.09
176.97

팔매 1278.19
160.13

“올해 제주경제 성장률 2%대 중반 전망”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조업·농림어업 회복 예상
인구 순유입 둔화·건설업 침체국면 악재도 여전
미중 무역분쟁 등 관광여건 악화 등 변수도 혼재

올해 제주경제가 관광관련 서비스업 여건 개선과 제조업 및 농림어업의 회복 등에 힘입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인구 증가 둔화, 가계부채 부담, 건설경기 침체,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간 긴장 고조로 인한 유가상승 등의 국내외적 환경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8일 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2019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20년 여건 점검' 브리핑에

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은 제주본부는 지난해 제주경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의 선전에도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부진으로 0.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올해 제주경제는 관광 등 서비스업 성장을 비롯해 지난해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약세를 보였던 농림어업 분야의 경우, 지난 2년 연속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등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설업 분야의 경우 건축허가면적, 건설수주액 등 선행지표 부진에 비해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1~16년 고도성장 이후 조정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거주여건 악화로 순유입 인구가 줄고 있는 점도 건설업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감소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은 제주본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등이 이뤄지면 제주경제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에 따

른 도민들의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기업의 채무부담 급증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재개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미·이란간 긴장고조로 인한 유가상승 등으로 국내의 관광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견지했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인구 순유입 증가, 건설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최근에는 외생적인 투입요소 중심의 성장동력이 약화됐다”며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융합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금투자자 haru@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미국·이란 무력충돌과 주식시장

“미국반응 주시 주식시장 관망 필요”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솔레 이마니 이란혁명군 사령관이 사망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관련 소식을 반영하며 S&P 500과 E-mini 선물은 하락하고 금 가격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의 격화로 사우디 증시 역시 지난 5일 2% 이상 급락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은 2015년 핵협정을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모스크에 적기를 게양하면서 보복을 시사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혁명군 사령관을 공격한 이후에 확전을 원치 않는 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제재 공격을 감행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번 일의 시발점은 작년 연말

지만 아직까지 높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유는 현재 이란의 경기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며 이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게릴라식 타격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이란의 거점에 대한 폭격 가능성 정도가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때문이다. 그렇기에 1990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과는 달리 단기적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년의 중동전쟁과 다르게 현재 치는 않는 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조정의 빌미가 되는 형태로 나

걸프전·이라크전 유사 예상 단기적 조정 시각 비중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조정 가능성 높다는 견해도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 1979년 테헤란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힌 사태와 유사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단기간 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유유부단하다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으며 결국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에게 패배하였다. 이는 트럼프에게 강경노선을 보이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이란이 보복한다면 이란 내 52개 목표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8일 이란이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십 대의 로켓탄을 발사하였는데 공격 지점은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란의 ISNA통신은 순교자 솔레 이마니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S&P선물은 1%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전면에 대한 우려감이 기존보다는 올라갔

타날 가능성 역시 높다. 이란과의 충돌로 인하여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후에 경제지표 및 미국의 대응 등에 따라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의 매물이 지속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던 심리지표들의 둔화가 빨라지게 된다면 경기 둔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지표 둔화 가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양국의 전면전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이란의 보복공격에도 아직은 낮은 가운데 단기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관망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봄비는 LG전자 부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가 개막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LG전자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롤러블 TV를 살펴보고 있다.

■ 최근 5년 제주 밭작물 추이 분석결과 과채류 재배 늘고 배추·당근 줄었다

최근 5년간 제주 밭작물의 추이를 보면, 노지채소 재배면적이 과채류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당근과 배추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의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

주지역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2016년 503ha, 2017년 563ha, 2018년 712ha, 2019년 865ha 등으로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과채류에는 오이, 참외, 수박, 토마토 등이 포함된다. 근채류인 양파도 2015년 641

ha에서 2016년 1566ha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매년 110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당근과 엽채류인 배추의 재배면적은 최근 몇 년 새 줄고 있다. 당근 재배면적은 2015년 1444ha, 2016년 899ha, 2017년 944ha, 2018년 864ha, 2019년 720ha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다. 배추도 2015년 220ha, 2016년 377ha, 2017년 460ha, 2018년 255ha, 2019년 241ha 등으로

부침이 심하다. 마늘은 최근 5년간 평균 2110ha~2120ha대를 보이면서 큰 변동이 없고 다만 생산량에서 차이를 보이며 가격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율동무를 포함한 무 재배면적은 2015년 5706ha, 2016년 5368ha, 2017년 6434ha, 2018년 7746ha, 2019년 6073ha 등으로 작수해에는 증가하고, 흡수해에는 감소하는 일명 '해거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백금투자자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발,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